

帝國主義經濟理論에 대한 理論的 檢討(其 I)

—「J. A. 슐페터」理論과 比較하여—

呂 井 東

<目 次>	
I 序 言	3. 批 判
II 「레닌」帝國主義理論의 構造	(以上 本號掲載)
1. 背 景	IV 「레닌」帝國主義理論과
2. 帝國主義理論의 構造	「슐페터」帝國主義理論의 比較
(1) 帝國主義의 標識	1. 帝國主義의 本質
(2) 帝國主義의 特質(歷史的 地位)	2. 接近方法
III 「슐페터」帝國主義理論의 構造	3. 帝國主義와 資本主義와의 關係
1. 背 景	4. 帝國主義의 推進主體
2. 帝國主義理論의 構造	5. 帝國主義와 軍國主義
(1) 帝國主義의 性格規定	6. 歸 結
(2) 帝國主義와 資本主義	V 「레닌」帝國主義理論의 批判

I. 序 言

帝國主義經濟理論은 「마르크스」主義理論, 自由主義理論, 惡魔理論(Devil Theory) 등으로 發展되어 왔다.⁽¹⁾ 「마르크스」主義理論은 「카우츠키」(Karl Kautsky)를 中心으로 하는 穩健派理論과 「레닌」과 그 後繼者를 中心으로 하는 強硬派理論으로 나뉜다. 「마르크스」主義理論은 資本主義와 帝國主義를 同一化(強硬派) 또는 傾向化(穩健派)로 規定한다.

「홉슨」(J.A. Hobson)을 代表로 하는 自由主義理論은 資本主義體制內에서의 不調停의 結果를 分析抽出하여 帝國主義를 說明한다. 「홉슨」은 帝國主義는 資本主義 그 自體가 아니라 資本主義體制內에서의 어떠한 不調停의 結果로 보고 帝國主義의 擴張은 不可避한 것도 아니요, 剩餘를 處理하는 合理的인 方法도 아니라고 主張한다. 「홉슨」은 帝國主義를 經濟的 動機로 부터 說明하나 二者擇一의 國內政策이라고 믿는 점에서 「마르크스」主義理

註 (1) 拙稿, 「帝國主義經濟理論의 批判」『經濟論集』, 第VII卷 第1號, 1968. 3. pp. 157-161 參照.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Alfred A. Knopf, 1955) p. 44.

論과는 對照的이다. (2) 惡魔理論은 그 内容에 따라 一名 戰爭製造說이라고 意譯되기도 하는데 이 理論의 骨子は 戰爭利得者는 自身이 더욱 富하게 되려고 戰爭을 計劃하는 戰爭狂이나 惡魔로 變하게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帝國主義와 戰爭一般과의 關係는 惡德資本家の 私의利益을 위한 陰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筆者는 帝國主義經濟理論을 批判하기 위하여 古典의 帝國主義理論을 追跡하면서 「J.A. 홉슨」, 「R. 힐퍼딩」, 「R. 록셈버그」, 「K. 카우츠키」, 「V.I. 레닌」 등의 理論을 涉獵하는 동안 「레닌」의 理論이 帝國主義經濟理論의 典型的인 것으로 浮刻됨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本論文에서는 「레닌」의 帝國主義理論의 構造를 「슈페터」理論構造와 相互 比較檢討하고 그것을 批判해 보려는 것이다.

帝國主義研究에 대한 「V.I. 레닌」의 視角은 19世紀 말에서 20世紀초에 걸쳐 一國에 있어서의 獨占과 金融資本의 運動을 基軸으로 形成된 獨占資本主義의 國內體制와 世界體制를 統一的으로 把握하는데 있었다. 이와 같은 限定된 時期的 歷史의 概念으로서의 帝國主義研究는 其實 科學의 方法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未洽하다. 一般理論으로서의 帝國主義概念을 樹立하려면 「레닌」의 限定된 視角보다는 廣範하고 一般的인 帝國主義를 研究對象으로 하는 立場이 보다 妥當할 것이다. 그래서 筆者는 「레닌」의 帝國主義理論을 批判함에 있어서 帝國主義의 概念을 普遍的이고 一般的인 類型으로서의 超歷史의 概念을 前提로 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레닌」帝國主義理論의 批判의 接近方法으로서는 哲學的, 政治學的, 社會學的, 歷史學的——심지어는 經濟學的 視角에서도 可能하다.——視角 등이 있을 수 있다. 筆者는 『經濟論集』(第Ⅶ卷, 第1號, 1968)에서 政治學的 視角에서 본 帝國主義經濟理論 批判의 拙稿를 發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社會學的 視角을 網羅한 多角的 側面에서 레닌帝國主義經濟理論의 批判을 試圖해 보려는 것이다.

非凡한 純粹經濟理論家인 「슈페터」(J.A. Schumpeter)는 그의 論文「帝國主義의 社會學」(Zur Soziologie der Imperialismen)⁽⁴⁾에서 社會學的 側面에서 帝國主義理論을 究明하면서

(2) 拙稿, 上揭論文, p. 160.

J.A. Hobson, *Imperialism: A study*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54) pp. 85—86.

(3) 拙稿, 上揭論文, p. 161.

Hans J. Morgenthau, op. cit., p. 46.

Charles A. Beard, *The Devil Theory of War* (New York: The Vanguard Press, 1963). 參照

(4) 이 論文은 *Archiv für Sozialwissenschaften und Sozialpolitik*, Bd. 46. 1919. pp. 1—39, pp. 275—310에 掲載되었던 것이다.

帝國主義經濟理論의 잘못을指摘하고 있다.⁽⁵⁾ 이論文이야말로社會學的側面에서帝國主義經濟理論을批判한唯一의素材라고 생각된다. 때문에「슈페터」의 이論文을中心으로「레닌」의帝國主義理論을比較檢討한然後에戰略的인「레닌」의帝國主義理論의批判을試圖해 보려는 것이다. 勿論 이러한試圖은既往에發表한拙稿와 마찬가지로整理過程이라기보다豫備過程이다.

「슈페터」理論을基底로 하여「레닌」理論을批判하기 위해서는大體로 다음과 같은問題, 즉帝國主義의本質, 接近方法의適否, 帝國主義와資本主義와의關係, 帝國主義의推進主體, 軍國主義(戰爭)와帝國主義, 帝國主義의結果와將來問題 등등을提起할 수 있을 듯하다.

2節에서「레닌」의理論構造와 3節에서「슈페터」의理論構造를 각각究明하고 4節에서는序言에서提起한 몇 가지問題點에立脚하여「레닌」理論과「슈페터」理論을相互比較해 보고 5節에서는「레닌」의帝國主義經濟理論의批判을試圖해 보려고 한다. 「슈페터」理論의未備點도 함께批判할 것을添記해 둔다.

Ⅱ. 「레닌」帝國主義理論의 構造

1. 背 景

「레닌」의帝國主義論은 19世紀말에서 20世紀초에 걸쳐自由競爭的資本主義로부터獨占資本主義로移行하는資本主義最高段階로서의帝國主義의經濟的特質을「마르크스」理論에立脚하여政策的으로究明한 것이다. 19世紀말에서 20世紀초에 걸쳐獨占資本主義와金融資本主義라는新事態에直面하자「마르크스」後繼者들은「마르크스」主義解明이重大한課題로登場되었다. 이러한新事態에 대한論爭은大體로三派로分類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歷史發展의原動力으로서의「마르크스」辯證法을否定하고「헤겔」辯證法으로還元시키면서政黨政治는合法的議會主義의立場을取하는改良主義의政黨을提案하는「베른슈타인」(E. Bernstein)을中心으로 하는 이른바修正主義派다.⁽⁶⁾

(5) Schumpeter, *Imperialism and Social Classes*, ed. & tran. by Sweezy and Norden, (New York, 1950) P.M. Sweezy, Editor's Introduction p.X and Notes 6.

(6) Eduard Bernstein, *Die Voraussetzungen des Sozialismus und die Aufgaben der Sozialdemokratie*, 1899에서「마르크스」主義의諸原理를意識적으로批判하고哲學的政治的修正主義理論을展開하였다. E. Bernstein의修正主義理論과그理論의適否에대한參考書로서는 H. Lefebre, *Pour Connaitre La Pensée de Lénine*, Bordas, 1957 (大崎平八郎譯『레닌』ミネルヴァ書房 1963)을 들 수 있다.

둘째는 資本主義發展의 新事態를 組織化된 資本主義 또는 金融資本의 政策으로서 생각한 「힐퍼딩」 등의 社會民主主義派를 들 수 있다. 그는 말하기를 “金融資本은 生産에 대한 社會的 管理의 樹立이기는 하나 그것은 敵對의 形態로서의 社會化다. 社會的 生産의 支配權은 寡頭政治의 手中에 있을 따름이다. 이 寡頭政治의 奪取를 爲한 鬭爭은 “부르조아지이」와 「프롤레타리아트」간의 階級鬭爭의 最後의 段階를 이루는 것이다”(7)라고 하였다. 이러한 「힐퍼딩」의 修正主義理論은 資本主義의 內在的 矛盾으로부터 自動的인 革命發展論을 主張한다든가, 獨占·金融資本主義의 新事態를 資本主義의 矛盾의 發展으로 把握하지 않고 組織化된 資本主義나 金融資本의 政策으로 把握한 것이었다.

세째는 「레닌」을 中心으로 하는 이른바 正統派다. 正統派의 立場은 組織化된 資本主義論, 金融資本政策으로서의 帝國主義論, 辯證法否定的 漸進主義論, 窮乏化 一般否定論 등과는 根本적으로 다르다. 「레닌」은 獨占·金融資本主義와 같은 新事態의 發展은 資本主義 最高段階로서의 帝國主義며 그것은 死滅해 가는 資本主義요 社會主義 革命前夜로서의 帝國主義라고 規定한다.

以上 세 立場中 어느 立場이든 「마르크스」主義를 發展解明한다는 問題意識에 限해서는 共通點을 갖고 있으나 新事態에 대한 對決方法에 있어서는 根本적으로 다르다. 첫째·둘째 立場은 修正主義의인테 反하여 「레닌」의 立場은 이른바 革命的이며 創造的이며 正統的 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레닌」이 『帝國主義論』을 執筆하게 된 背景은 「E. 베른슈타인」의 『社會主義의 前提와 社會民主黨의 任務』, 「R. 힐퍼딩」의 「金融資本論」, 「로자·록셈버그」의 『資本蓄積論』(Die Akkumulation des Kapitals, ein Beitrag zur Ökonomischen Erklärung der Imperialismus, 1913), 「K. 카우츠키」의 『帝國主義』(Der Imperialismus in Neue Zeit, XXXII, 2, 1914) 등에서 나타나는 理論에 對決해야만 할 實踐的 問題意識으로부터 始作되었던 것이다.

他方 그가 그것을 執筆하게 된 狀況적이고 時期的인 動機는 第一次世界大戰에 直面하여 社會主義者들의 行動統一에 龜裂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經濟的 根元을 解明하고 이른바 「革命的 마르크스主義」를 蘇生시켜 共產主義者들이 戰爭에 임해서 取할 態度를 提示하려는데 있었다. 具體적으로 말하면 「第二인터내셔널」은 1907年의 「슈트트가르트」大會에서 切迫한 世界大戰에 대한 反對決議案을 採擇했고 1912年의 「바젤」大會에서는 이것을 再確認했지만 이大會에서 「마르크스」主義의 有力한 理論家인 「K. 카우츠키」는 大

(7) R. Hilferding, *Das Finanzkapital*, 1910, S. 567. (林要譯 『金融資本論』, 1953年, pp. 539—40).

會決議를 背反하여 戰爭支持로 轉向했고, 1914年 일단 戰爭이 勃發하자 交戰國 大多數의 社會主義政黨은 戰爭沮止의 共同鬪爭이 아니라 自國의 戰爭遂行政策에 協力하였다. 이러한 狀況에 대한 對應策으로서 「레닌」은 『帝國主義論』을 執筆했던 것이다. 이러한 動機로부터 帝國主義論을 執筆함에 즈음하여 그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課題에 直面하였다. 하나는 交戰各國의 社會主義者들을 結合하기 위한 새로운 「인터네쇼날」을 結成하여 反戰活動을 組織化하려는 實踐的 課題였고, 둘은 그러한 實踐的 課題를 支撐할 수 있는 帝國主義 戰爭의 理論的 性格을 明白히 하려는 이른 바 科學的 解明이었다.

이러한 背景으로부터 誕生한 「레닌」의 帝國主義論은 宜當 意圖된 政策的 考慮가 앞선 한 革命家로서의 戰略理論이 될 수밖에 없었다.

2. 帝國主義理論의 構造

(1) 帝國主義의 標識

帝國主義를 二者擇一의인 國內政策이라고 解釋하는 「J.A. 홉슨」이나 金融資本一般의 政策으로서 解釋하는 「R. 힐퍼딩」이나 帝國主義를 새로운 段階로서가 아니라 民族의 支配, 被支配의 政策으로서 解釋하는 「K. 카우츠키」⁽⁸⁾나 「J. 스트레이치」⁽⁹⁾의 見解와는 달리 「레닌」은 帝國主義를 資本主義의 最高段階로서의 現象形態로서 理解하고 帝國主義의 崩壞는 곧 資本主義 그 自體의 崩壞인 同時에 그것은 共產主義革命前夜를 意味하는 政策的인 것으로 解釋하였다. 「레닌」은 이러한 帝國主義의 基本的 經濟構造의 特質로서 다섯 가지의 標識를 列擧하고 있다.⁽¹⁰⁾

첫째 : 生産 및 資本의 集中——「레닌」은 帝國主義의 基本的 經濟構造의 特質로서 첫째로 「經濟生活에 있어서 決定的인 獨占을 形成할 수 있는 高度의 發展段階에 到達한 生産 및 資本의 集中」을 들고 있다. 이것은 그가 帝國主義의 基本的 經濟構造의 分析에 즈음하여 競爭的 資本主義가 獨占資本主義로 轉移되는 特性을 나타낸 것이다. 그는 資本主義의 內在的 本性인 競爭의 結果가 資本을 集中시키게 되어 獨占을 發生케 한다고 分析하였다..

(8) Karl Kautsky, *Der Imperialismus in Neue Zeit*, XXXII, 2, 1914, S. 909.

V.I. Lenin,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50), pp. 145—6.

(9) John Strachey, *The End of Empire* (Victor Gollancz, 1959), 關嘉彦他譯『帝國主義의 終末』序文 p. iv에서 帝國主義에 관하여 “그것은 어느 民族 또는 어느 國民이 他民族 또는 他國民을 征服하고 制壓하여 永久的 支配를 하는 過程”이라고 言及하고 있다.

(10) 拙稿, 上揭書, p. 159.

V.I. Lenin, *op. cit.*, p. 143.

이 점이 信用을 基軸으로 하여 獨占論을 展開한 「R. 힐퍼딩」의 理論과는 다르다.

「레닌」은 英國, 獨逸, 美國 등의 先進資本主義諸國을 例擧하면서 19世紀말에서 20世紀 초에 걸쳐 工業發展과 大規模企業에 의한 生産의 集中이 獨占으로까지 發展하여 既往의 自由競爭的 資本主義에 代行되는 獨占資本主義가 成立했음을 제 나뉠대로 實證하고 있다. 그는 “最高의 發展段階에 있는 資本主義의 매우 重要한 特質은 各種의 工業部門이 하나의 企業集團으로 되는 이른바 生産의 結合”⁽¹¹⁾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集中된 工業部門은 生産力의 不均等發展을 內包하고 矛盾을 擴大시킨다고 보았던 것이다.

또 그는 말하기를 “保護關稅나 自由貿易과 같은 問題로서 나타나는 資本主義諸國間的 獨占進行의 差異는 獨占의 形態 또는 獨占出現의 時期와 같은 非本質的인 相異性을 나타낼 뿐인데 反하여 生産의 集中結果로서 나타나는 獨占의 發生은 現在의 資本主義發展段階의 一般的이고 基本的인 法則”⁽¹²⁾이라고 한다. 生産의 集中을 基軸으로 한 獨占의 發生은 獨逸이나 美國만의 特殊性이 아니라 自由競爭的 資本主義體制를 오래 維持하고 있었던 英國마저도 늦게나마 결국은 獨占으로 移行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自由競爭的 資本主義도 必然的으로 生産이 集中되어 緩慢하기는 하나 結局은 獨占化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레닌」이 強調한 점은 保護貿易이나 自由貿易과 같은 外的要因보다 生産의 集中에 의한 獨占發生이란 事實이 法則的으로 定立된다는 것이다.

둘째 : 金融資本과 金融寡頭制의 發生——둘째標識는 첫째標識를 補完하는 것으로 信用의 役割을 明白히 하려는 데 있었다. 말하자면 信用을 中核으로 하는 銀行業의 集中이 進行되어 獨占銀行으로 轉化하는 것은 生産과 資本의 集中으로서 獨占이 成立되는 것과 表裏一體의 關係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이 生産의 集中은 考慮하지 않고 銀行中心主義만을 생각한 「R. 힐퍼딩」의 見解와는 相異한 것이다.

銀行獨占의 形成으로 생기는 새로운 役割을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로 모든 資本主義國家는 銀行法이 各各 다름에도 不拘하고 그들 銀行은 資本集中과 獨占形成의 過程을 매우 強力하게 促進시켰다.⁽¹³⁾ 왜냐 하면 銀行獨占의 形成은 商工業과 銀行의 融資關係로 말미암아 商工業의 銀行에 대한 從屬關係가 發生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銀行獨占到 의해서 促進된 生産의 社會化도 資本主義體制下에서는 私的獨占의 利益만을 가져오고

(11) V.I. Lenin, *op. cit.*, p. 24.

(12) *ibid.*, p. 28.

(13) *ibid.*, p. 56.

大衆의 窮乏化나 農業과 工業의 不均等發展의 矛盾 등은 深化되기만 한다. 세계는 銀行과 大商工業企業간의 密接한 「人的結合」(Personal Union)⁽¹⁴⁾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金融資本의 새로운 役割은 生産 및 資本의 集中과 獨占의 形成과 더불어 矛盾은 漸增하여 그것은 金融寡頭制로 發展한다는 것이다.

「레닌」은 『帝國主義論』 第三章에서 金融資本에 대한 定義를 내리기 위해서 먼저 “金融資本이란 銀行資本이 産業資本을 支配하는 바의 資本”⁽¹⁵⁾이라고 規定하는 「R. 힐퍼딩」의 定義는 不完全하다고 말하면서 “「R. 힐퍼딩」의 定義는 가장 重要한 하나의 要因 말하자면 生産과 資本의 集中이 獨占으로 移行된다는 점은 疎忽히 하였다.”⁽¹⁶⁾고 한다. 그러면서 “生産과 資本의 集中, 集中으로부터 생기는 獨占, 銀行과 産業과의 融合과 合同 등등이 金融資本을 發生케 한 歷史이며 金融資本의 內容이라”⁽¹⁷⁾고 規定하면서 “商品生産과 私有財産의 一般的인 狀況下에서는 獨占資本家の 企業作用은 必然的으로 金融寡頭制를 發生케 한다”⁽¹⁸⁾고 말한다.

金融資本이 金融寡頭制를 發生케 하는 手段은 參與制度(Holding System)로서, 말하자면 母會社(Mother Company)가 株式所有를 通하여 子會社(Daughter Company)를 支配하고 또 이 子會社는 餘他の 孫子會社(Grandchild Company)를 支配하게 된다. 그러므로 金融資本은 比較的 적은 資本으로도 巨大한 生産領域을 支配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⁹⁾ 이러한 金融寡頭制의 支配體制는 國內領域뿐만 아니라 國際的인 植民地・從屬國支配로까지 適用되는 國際支配體制로까지 擴大解釋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 : 資本輸出——帝國主義의 基本的 經濟構造의 特質로서 商品輸出과 다른 資本輸出이 特히 重要한 意義를 가진다는 것이다. 帝國主義의 標識로서의 이 資本輸出의 대목은 帝國主義의 國際的 基礎를 具體的으로 解明하기 始作하는 것이다.

「레닌」은 “自由競爭의인 舊資本主義의 典型성은 商品輸出이었으나 獨占이 支配하는 資本主義의 最後段階의 典型성은 資本輸出”⁽²⁰⁾이라고 말한다. 그 例로서 英國, 獨逸, 佛蘭西, 美國 등등의 先進國은 獨占段階에 접어들자 巨大한 資本蓄積이 생겨 過剩資本은 높은 리

(14) *ibid.*, pp. 63-64.

(15) *ibid.*, p. 73.

(16) *ibid.*, p. 73-74.

(17) *ibid.*, p. 74.

(18) *ibid.*, p. 74.

(19) *ibid.*, p. 75-76.

(20) *ibid.*, p. 98.

潤率과 높은 利率이 適用되는 植民地 및 從屬國에 輸出되었다고 指摘한다. 그리고 그는 어디까지나 資本輸出은 둘째 번의 標識 즉 金融資本의 支配問題와 關聯해서 把握하고 있다.

「레닌」은 資本輸出의 形態에 따라 帝國主義의 세 가지 類型化를 試圖하였다. 첫째는 資本投資를 植民地爲主로 하였던 英國의 「植民地的 帝國主義」와 이에 反하여 產業企業에 投資하지 않고 資本貸與나 政府貸與를 主로 하는 佛蘭西의 「高利貸的 帝國主義」와 第三의 形態인 獨逸의 帝國主義 즉 「植民地的 帝國主義」와 「高利貸的 帝國主義」가 公平하게 混合된 말하자면 「용커」의 부르조아의 帝國主義가 그것이다.

「레닌」은 資本輸出(外國投資)이 항상 自動的으로 帝國主義를 誕生시킨다고 하였으나 事實은 外國投資가 債務國의 混亂狀態 또는 非妥協의 態度라고도 할 수 있는 障害와 衝突했을 때만이 帝國主義가 誕生했다고 말하는 것이 한층 正確한 見解임을 提起해 둔다.(第 5 節 參照)

예제: 獨占資本家團體間的 世界分割(國際獨占體의 形成)——「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資本輸出이 增加하고 大獨占體의 影響圈과 對外的 植民地的 關係가 全面的으로 擴大됨으로써 獨占體間的 國際的 協定과 카르텔의 形成은 不可避하며 이것은 資本과 生産과의 新段階다.”⁽²¹⁾ 이러한 것을 그는 超獨占(Supermonopoly)이라는 用語로서 表現하였다. 超獨占의 形成過程을 그는 19世紀말에서 20世紀초에 걸쳐 美國, 獨逸, 英國, 佛蘭西 등의 相互關係國間에 發生한 電氣工業, 石油業, 海運業, 鐵道業, 鐵鋼業 등을 例證하면서 結論짓기를 “最高段階로서의 資本主義時代는 世界的 經濟的 分割을 바탕으로 하는 資本家團體間的 關係가 形成되고 나아가서 世界的 領土分割과 植民地에 대한 鬭爭과 經濟的 領域에 대한 鬭爭 등을 유발케 하는 國家 및 政治的 團體間的 相互關係가 形成된다”⁽²²⁾고 하였다. 國際的 獨占體의 形成은 資本主義諸國간의 發展의 不均等性으로 말미암아 政治的 性格을 띠게 되어 武力戰으로 化한다는 것이다. 要는 世界를 서로 分割하는 獨占資本家團體의 形成으로 말미암아 鬭爭이 必然的으로 發生함을 意味한다. 그러므로 「K. 카우츠키」의 見解는 매우 非現實的이며 虛望하다는 것이다.⁽²⁴⁾

다섯째: 資本主義的 列強에 의한 世界領土分割의 完了(植民地分割의 完了)——「레닌」은 6大強國이 1876년부터 1914년까지 取得한 植民地獲得에 대한 資料를 圖表로서 提示하

(21) *ibid.*, p. 102.

(22) *ibid.*, p. 107.

(23) *ibid.*, p. 121.

(24) *ibid.*, pp. 119-120.

고⁽²⁵⁾ 植民地의 移轉 및 再分割을 問題의 焦點으로 삼고 있다. 이 分析의 結果 첫째로 新興資本主義諸國(美國, 獨逸, 日本)은 急速한 發展을 이루었고 둘째로 舊資本主義發展國(佛蘭西, 英國)은 그들의 發展이 新興資本主義國家보다 훨씬 緩慢하였고 세계로 經濟的 後進國(露西亞)은 現代的 資本主義的 帝國主義가 前資本主義的 關係와 密接히 關聯되어 있음을 指摘하고 있다.⁽²⁶⁾ 이러한 分析의 結果는 資本主義의 不均等發展으로 帝國主義世界의 內部的 矛盾은 顯在化되어 世界列強들의 領土의 再分割을 위한 鬭爭은 不可避함을 暗示하고 있다. 그러나 歷史的 事實은 그렇게 展開되지 않았다.(5節 參照)

「레닌」은 獨占 및 金融資本主義時代에 있어서 世界植民地政策으로 나아가게 되는 理由를 다음과 같이 喝破한다.⁽²⁷⁾ 첫째, 金融資本이 緊히 熱望하는 것은 既得의 原料뿐만 아니라 쓸모없는 領土까지도 獲得하려는 傾向이 있다. 오늘날의 技術發展은 急進的인 것이어서 어떠한 原料든 獲得하기만 하면 利用할 수 있기 때문에 投資를 敢行한다. 둘째, 資本輸出의 利益도 매양 植民地征服을 促進한다. 왜냐하면 植民地市場에서는 競爭을 排除하고 獨占方法을 追求함이 容易하기 때문이다. 세계, 金融資本을 基軸으로 하여 생겨난 經濟外的인 上部構造, 즉 金融資本의 政治와 이데올로기도 植民地征服의 動因으로 된다. 왜냐하면 金融資本은 自由를 願하지 않고 支配를 願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理由에서 最高段階로서의 資本主義列強은 世界의 領土分割을 不可避하게 遂行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考察한 것이 「레닌」이 말한 帝國主義의 基本的 經濟構造에 관한 다섯가지 標識의 骨格部分이었다. 이러한 다섯 가지 標識의 總體的인 整理로서 그는 帝國主義를 다음과 같이 定義하였다. “帝國主義란 獨占과 金融資本의 支配가 成立되고 資本輸出이 가장 重要的 것으로 되며 國際的 トラ스트에 의한 世界의 分割이 始作되고 資本主義最強國에 의해서 地球全領土의 分割이 完了되는 그러한 發展段階에 있어서의 資本主義”⁽²⁸⁾라고.

한 가지 더 言及해야 할 것은 帝國主義의 基本的 經濟構造의 特質 즉 다섯 개의 標識中 前半 두 개는 國內經濟構造에 관한 것이고 後半 세 개는 國際經濟構造에 관한 것이다. 이 兩者間의 密接한 相關關係로부터 發生되는 帝國主義는 資本主義의 特殊한 歷史的 段階인 資本主義의 最高段階로서 規定되므로 이것이 資本主義一般에 대한 「레닌」의 「帝國主

(25) *ibid.*, p. 129.

(26) *ibid.*, p. 131.

(27) *ibid.*, pp. 134—137.

(28) 拙稿, 上揭論文, p. 159.

Lenin. *op. cit.*, p. 143.

義의 歷史的 地位]가 設定되는 所以다.

(2) 帝國主義의 特質(歷史的 地位)

「레닌」은 帝國主義의 歷史的 地位 즉, 資本主義의 特殊한 歷史的 段階의 特殊性을 戰略的 意圖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把握한다.

첫째 : 帝國主義는 獨占資本主義다. —「레닌」은 帝國主義의 根本的인 經濟的 基礎를 獨占資本主義로서 把握하고 이 獨占資本主義의 特有한 歷史的 形態로서는 첫째, 高度화된 生産의 集中 즉 「카르텔」, 「신디케이트」, 「트러스트」, 둘째, 原料資源의 獨占의 支配, 셋째, 金融寡頭制, 넷째, 植民地의 獨占的 所有라는 네가지의 重要現象을 提示한다.⁽²⁹⁾ 그러므로 獨占은 資本主義로부터 發生하며 또 資本主義와 必需品生産과 競爭의 一般의 環境과 이러한 一般의 環境에 대한 永久的이고 深化되는 矛盾 속에 存在한다는 것이다.⁽³⁰⁾ 여기서 말하는 獨占資本主義는 資本主義의 最後段階를 意味하는 것이고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로 移行되는 過渡的 段階 즉 共產主義革命 前夜를 意味하는 것이다.

둘째 : 帝國主義는 寄生的(Parasitic) 또는 腐敗(Decay)하고 있는 資本主義다. —「레닌」은 資本主義의 寄生性과 腐敗를 다음과 같은 점에서 發見한다. 즉 獨占體는 一般적으로 높은 價格과 利潤을 維持하기 위해서 종종 여러가지 商品의 生産을 人爲적으로 制限한다. 때문에 技術上의 進歩를 應用하는 데는 關心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生産力의 發展은 沮止되고 資本主義는 不可避하게 浸滯되고 腐敗할 수 밖에 없다.⁽³¹⁾ 더우기 寄生性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展開한다. 즉 帝國主義國家에 사는 龍대한 資本家層은 有價證券을 가지고서 이로부터 생기는 收入으로 生活하는 金利生活者로 되고 國際적으로는 資本輸出의 結果 植民地와 從屬國人民을 搾取하는 寄生的 金利生活者國家가 되며 終局에는 高利貸國家와 多數의 債務國家와의 分裂이 特徵적으로 된다는 것이다.⁽³²⁾

寄生性의 把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簡潔하게 表現하고 있다. “獨占, 寡頭制, 自由에 대한 努力에 代行되는 支配에 대한 努力, 가장 富裕하고 가장 強力한 小數民族에 의한 多數의 弱少民族에 대한 搾取의 增加——이러한 것들이 帝國主義를 寄生的 또는 腐敗하고 있는 資本主義로서 特徵지우는 要因들이다. 이러한 要因들로 말미암아 帝國主義傾向의 하나인 金利生活者國家와 高利貸國家의 形成이 점점 明白하게 된다. 金利生活者國家의 부르조

(29) Lenin, *op. cit.*, pp. 198—199.

(30) *ibid.*, p. 160.

(31) *ibid.*, pp. 160—161.

(32) *ibid.*, Chapter VIII.

아지는 점점 資本輸出과 帳簿의 操作에 의해서 生活하게 된다”(33)고. 어명한 「레닌」은 帝國主義의 寄生性を 獨占의 全體制의인 여러 가지 現象形態로부터 생겨난다고 把握한다.

또 「레닌」은 側面을 달리하여 “金利生活者國家는 寄生的 또는 腐敗하고 있는 資本主義國家다. 寄生的 또는 腐敗하고 있는 國家는 一般的으로는 그들 國家의 모든 社會的 政治的 條件에 特殊의으로는 勞動者階級運動의 두 가지 基本的인 潮流에 影響을 끼칠 것이 틀림없다.”(34)고 말한다. 이것은 資本主義의 寄生성과 腐敗를 社會政治的 側面으로부터 說明한 것이다. 이러한 社會政治的 側面에서 가장 重要的 것은 獨占資本主義國家는 腐敗와 寄生성의 經濟的 基礎를 이루는 獨占의 高利潤의 收奪結果 이에 대한 對備策으로 노동자의 指導層과 勞動貴族을 買收하는 經濟的 可能性을 發生케 하고, 그 結果 機會主義者를 培養하여 勞動運動을 一時的으로 分裂시키고 墮落시켜 버린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레닌」은 寄生성과 腐敗의 문제를 단순히 經濟的 側面에서만 아니라 社會政治的 側面에서도 共히 다루고 있음이 特徵의이다.

세째 : 帝國主義는 死滅하고 있는 資本主義다. —金融資本에 의한 獨占의 高利潤의 收奪은 그 自體 否定的인 作用으로서 勞動貴族과 機會主義者를 만들어 一時的으로는 資本主義의 死滅을 延長시킬 可能性도 있다. 帝國主義의 矛盾이 激化하면 할수록 金融資本은 그 獨占의 高利潤으로서 社會를 部分的으로 改良하고 機會主義者를 培養하여 勞動者階級の 革命的 鬪爭의 弱화를 企圖할 것이다. 이에 對處하기 위해서 「레닌」은 “이러한 現象의 經濟的 基盤을 理解함이 없이는, 또 이러한 現象의 政治的 社會的 意義를 評價함이 없이는 共產主義運動 또는 社會革命의 實踐의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方向으로 一步도 進展할 수 없다”(35)고 強調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社會政治的 側面에서의 寄生성과 腐敗現象은 과연 帝國主義의 矛盾을 永續의으로 緩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問題를 提起한다. 이에 대한 解答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帝國主義段階에서는 獨占의 高利潤의 操作으로 機會主義者가 생기지만 그것은 漸次로 爛熟하고 腐敗하여 부르조아지 政治와 強固히 結托되고 勞動運動의 利益과는 根本的으로 相反되어 相互間的 鬪爭은 激化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鬪爭은 世界分割에서도 適用된다. 그런데 機會主義者의 基礎는 決코 安定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오래도록 勞動運動에서 勝利할 수는 없고 오히려 帝國主義의 矛盾은 深化되어 간다

(33) *ibid.*, pp. 200—201.

(34) *ibid.*, pp. 164—165.

(35) *ibid.*, Preface to the French and German Editions, p. 18.

는 것이다. 그러나 둘째로 “帝國主義에 대한 鬭爭이 機會主義者에 대한 鬭爭과 密接히 併行되지 않는 한, 帝國主義에 대한 鬭爭은 하나의 虛僞요 空虛한 것에 不過하다”⁽³⁶⁾는 것이다. 말하자면 機會主義가 爛熟하고 帝國主義的 矛盾이 深化되면 될수록 金融資本은 점점 機會主義를 補強하여 서로의 融合을 꾀하려는 必死的인 努力을 傾注할 것이므로 機會主義를 打破 克服하는 것이 帝國主義를 止揚하고 새로운 社會主義를 樹立할 수 있는 必須條件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레닌」은 帝國主義의 死滅性에 대한 根本規定을 獨占資本主義的 矛盾과 帝國主義에 대한 鬭爭이라는 全面的 展開過程으로서 把握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指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레닌」은 資本主義의 寄生성과 腐敗의 規定을 死滅性에 대한 根本規定을 導出하는 媒介規定으로 取扱하고 있지만 『帝國主義論』에서의 死滅性의 規定은 그 自體로서는 매우 抽象的이며 一般的으로 說明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考察한 것이 「레닌」의 이른바 帝國主義의 세 가지 特質의 概要다. 「레닌」은 獨占資本主義, 寄生的인 또는 腐敗하고 있는 資本主義, 死滅하고 있는 資本主義를 帝國主義의 特質로서 把握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特質은 帝國主義의 基本的 經濟構造의 다섯 가지 標識와 함께 『帝國主義論』의 全體構造를 形成한다.

× × ×

「레닌」의 帝國主義理論은 資本主義의 基本的 經濟構造와 그 矛盾의 總體를 分析한 점에 있다. 結論컨대 資本主義의 獨占形成의 必然性, 獨占形成을 基軸으로 하는 銀行의 役割, 金融資本과 金融寡頭制의 發生, 그 國際的 展開形態로서의 資本輸出의 優位, 國際的 獨占體의 形成에 따른 世界의 經濟的 分割, 資本主義列強에 依한 世界領土分割의 完了와 殖民地體制의 形成, 資本主義의 不均等發展으로부터 생기는 世界의 分割과 帝國主義戰爭의 不可避性 등등이 「레닌」帝國主義論의 基本的 經濟構造의 特質을 構成하고 他方 資本主義一般으로서의 帝國主義의 歷史的 地位, 즉 獨占資本主義, 寄生的 또는 腐敗하고 있는 資本主義, 死滅하고 있는 資本主義를 함께 總括적으로 把握하고 있다. 이것이 「레닌」帝國主義理論의 全體構造다.

이러한 「레닌」理論의 全體構造는 5節에서 批判하듯이 普遍的이고 一般的인 類型으로서의 帝國主義의 一般原理에도 適用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科學的 解明이라는 本來의 目的과도 相反되는 革命的 戰略理論으로 墮落하고 말았다. 「H. J. 모젠소」教授가 말하듯 帝國主義經濟理論은 歷史的 經驗을 論證하는데 失敗한 것이었다. (本論文 5節 參照)

(36) *ibid.*, p. 204.

Ⅲ. 「슈페터」帝國主義理論의 構造

1. 背 景

「슈페터」의 帝國主義에 관한 理論은 그가 1919년에 發表한 「帝國主義의 社會學」(Zur Soziologie der Imperialismen)⁽³⁷⁾이라는 論文에 잘 展開되어 있다. 한평생동안 支配해 온 「슈페터」의 基本的인 態度는 「마르크스」主義를 批判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나아가서는 「마르크스」主義經濟學에 대한 對抗意識이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基本的인 立場이 帝國主義理論에서도 그대로 適用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는 「마르크스」主義者들이 經濟的 利害를 바탕으로 하여 唯物史觀的으로 說明하는 帝國主義의 定義를 철저히 反駁하면서 “帝國主義的 諸現象을 當該時代와 當該國家의 經濟構造의 諸作用, 生産關係, 經濟的 階級利益으로서 說明하는 「新마르크스」主義者(Neo-Marxist)⁽³⁸⁾들의 理論은 經濟史觀으로 부터 論理的·必然的으로 推論되는 것은 아니다. 「新마르크스」主義者들의 理論을 否定해도 그것은 經濟史觀에 대한 矛盾도 아니요 經濟史觀의 前提로 부터 乖離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것을 取扱하는 것이 時代精神(Zeitgeist)의 社會學에 대한 帝國主義論研究의 目的⁽³⁹⁾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그는 帝國主義의 本質은 그 自體가 經濟的 解釋으로 부터 論理的·必然的으로 推論되는 것이 아니고 社會學的 問題로서 提起되어야만 한다고 主張한다.

「슈페터」가 社會的 帝國主義理論을 唱導케 된 背景(動機)은 두 가지로 要約할 수 있을 듯하다.

첫째는 「新마르크스」主義理論 (「O. 바우어」나 「R. 힐퍼딩」의 理論)으로부터 刺戟받은 점이다. 이에 대한 間接的인 證據로서 推理할 수 있는 것은 「비엔나」에서의 學生時節

(37) 「슈페터」의 이 論文은 그의 다른 論文 “Die Sozialen Klassen in ethnisch homogenen Milieu,” *Archiv für Sozialwissenschaften und Sozialpolitik*, Bd. 57, 1927, pp. 1-67과 함께 1950년에 P.M. Sweezy가 編輯하여 다음과 같은 英譯 單行本을 出刊하였다. “Joseph A. Schumpeter: *Imperialism and Social Classes*, ed. & tran. by Paul M. Sweezy and Heinz Norden. 그 후 1955년에 *Two Essays by Joseph Schumpeter: Imperialism and Social Classes*, Introduction by Bert Hoselitz, tran. by Heinz Norden 이 나왔으나 그 內容은 前者의 것과 하나도 다름이 없다. 筆者가 본 論文을 作成하는데 利用한 臺本은 全的으로 後者의 英譯本이며 前者의 경우는 P.M. Sweezy의 Editor's Introduction만을 參考하였다.

(38) 「슈페터」가 말하는 新마르크스主義理論이란 主로 Otto Bauer와 R. Hilferding의 理論을 말한다.

(39) *Two Essays by Joseph Schumpeter: Imperialism and Social Classes*, Introduction by Bert Hoselitz, tran. by Heinz Norden, (Cleveland and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 1964) p. 7.

부터 「O. 바우어」나 「R. 힐퍼딩」을 「슈페터」는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많은 刺戟을 받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슈페터」의 帝國主義論 以外の 여러 가지 著述로부터 推理할 수 있다. 하나의 例만 들면 그는 그의 力作『景氣循環論』에서 “「마르크스」主義的 帝國主義理論은……第一次世界大戰前的 帝國主義를 trusts 化한 資本主義의 諸條件으로부터 發生한 것이라고 解釋하려 했다. 이러한 說明은 原理上 統一性을 갖고 있으며 分析的 性向을 가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커다란 魅惑을 느끼게 했음은 當然하다. ……그러나 나는 「마르크스」主義理論보다는 「칼 댄나」의 社會的 帝國主義의 概念이 眞理에 가깝다고 생각한다”⁽⁴⁰⁾고 말하고 있다. 「新마르크스主義」理論으로부터 刺戟받은 直接的인 證據는 그의 主著『帝國主義論』第五章에서 發見할 수 있다. 그는 “保護政策은 카르텔이나 trusts 的 形成을 助長하여 利害關係의 系列을 全的으로 改變한다. 이러한 事情을 最初로 適確하게 描寫하여 (「O. 바우어」) 「保護主義의 機能的 變化」의 重要性을 充分히 認識한 것은 (「R. 힐퍼딩」) 「新마르크스」學徒의 理論이었다”⁽⁴¹⁾고 말하면서, 카르텔과 trusts 的 機能을 分析하고 난 然後에 “資本主義制度는 그 內在的인 必然性에 의해서 確定되든가, 或은 그 自身の 成長發展에 의해서 必然的으로 自體崩壞한다는 理論은 잘못이다. 이러한 점에서 「마르크스」의 理論進行方法은 잘못이다. 「R. 힐퍼딩」이 以上과 같은 「마르크스」理論의 命題를 拋棄했음은 커다란 功績이 아닐 수 없다”⁽⁴²⁾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R. 힐퍼딩」의 誤謬를 지적하기를 “社會는 반드시 資本主義를 넘어서서 成長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나 그것은 資本主義의 業績으로 말미암아 資本主義가 不必要하게 되는 所以이며 資本主義의 內在的 矛盾이 그 存續을 不可能하게 하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資本主義를 社會發展의 最後段階로서 또는 自然的・必然的으로 存在하는 것인 양 解釋하는 見解는 물리치고 싶다. 나는 어떠한 意味로서든 資本主義를 理想的인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편 나는 「R. 힐퍼딩」과 같이 獨占化가 資本主義를 安定化시킨다는 理論에도 贊成할 수 없다”⁽⁴³⁾고 잘라 말한다. 이러한 直接的인 證據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P.M. 스위지」가 그의 編輯者序文에서 「슈페터」帝國主義論의 關心이 「新마르크스」主義라고 呼稱됐던 학자들의 理論에 刺戟받았다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直接的인 證據는 잡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잘못이 아닐 수 없다.

(40) J.A. Schumpeter, *Business Cycles*, 1939, Vol. II. p. 696.

(41) *Two Essays by Joseph Schumpeter*, p. 79.

(42) *ibid.*, p. 82.

(43) *ibid.*, pp. 174-175. Notes 11.

間接的·直接的 證據가 明示하는 바와 같이 「슈페터」帝國主義論의 첫째 目的은 經濟的 帝國主義論을 批判하려는 데 있었다.

帝國主義論唱導의 둘째 背景은 時期的이고 狀況的인 動機였다. 즉 「하버러」가 지적한 바와 같이⁽⁴⁴⁾ 第一次大戰中 「슈페터」가 堅持하고 있었던 基本的인 態度, 말하자면 平和主義者의 親西歐的 反獨의 傾向을 敘述하려는 데 있었다.

「슈페터」는 純粹한 資本主義世界에서는 帝國主義的 衝動이 育成되기 어렵고 오히려 經濟的인 侵透가 있는 곳에는 反帝國主義的 傾向이 나타난다는 것을 다섯 가지 事例를 들어 證明하면서⁽⁴⁵⁾ 한 걸음 더 나아가 “軍國主義는 資本主義를 그 本來의 軌道로부터 離脱시켜 많은 利得을 얻는다.”⁽⁴⁶⁾ 고 主張하여 反獨의 親西歐的 傾向을 暗示한다. 뿐만아니라 帝國主義의 將來를 豫診함에 있어서는 帝國主義的 消滅說을 提示하여⁽⁴⁷⁾ 平和主義者의 立場을 堅持하고 있다.

이러한 背景에서 出發한 「슈페터」帝國主義理論의 目的은 「P.M.스위지」가 말한 바와 같이 하나는 「O.바우엘」과 「R.힐퍼딩」의 理論을 批判하려는 것이었고 (結果的으로는 「레닌」의 理論도 批判한 것이다.)⁽⁴⁸⁾ 또 하나는 「新마르크스」理論에 代身하여 戰爭 및 그 前提가 適切히 說明될 수 있는 그 自身의 理論構造를 提示하려는 것이었다.⁽⁴⁹⁾

2. 帝國主義理論의 構造

(1) 帝國主義의 性格規定

當時의 帝國主義論者인 「홀슨」, 「힐퍼딩」, 「카우츠키」, 「룩셈버그」, 「레닌」 등은 經濟的 接近方法을 基礎로하여 帝國主義經濟理論을 展開한데 반하여, 「슈페터」는 社會學的 接近方法을 기초로하여 帝國主義社會理論을 展開하였다. 「슈페터」는 資本主義時代에 있을 수 있는 帝國主義를 經濟的 帝國主義論者들과는 달리 歷史的으로나 社會學的으로나 前資本主義時期의 非合理的인 社會構造의 要素, 組織形態, 利害關係 및 人間的態度등의 繼承物로 歸着

(44) Haberler, "Joseph Alois Schumpeter,"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August, 1950, p. 359.

(45) *Two Essays by Joseph Schumpeter*, pp. 69-73.

(46) *ibid.*, p. 96.

(47) *ibid.*, p. 98.

(48) 「슈페터」의 『帝國主義論』은 第一次世界大戰중에 쓴 것 같다. 當時 「슈페터」는 「레닌」의 主著 『帝國主義論』의 出版은 알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레닌」의 『帝國主義論』은 1916년에 著述되어 1917년에 露語版으로 出刊되었고 獨語版과 佛語版은 1920년에 이르러 비로소 出刊되었다. 그러므로 「슈페터」는 「레닌」의 『帝國主義論』을 直接批判한 것이 아니라 結果的으로 批判한 것이다.

(49) Joseph A. Schumpeter: *Imperialism and Social Classes*, ed. & tran. by Paul M. Sweezy and Heinz Norden, (New York, 1950). Paul M. Sweezy, Editor's Introduction, p.X.

시켰던 것이다.

「슈페터」는 帝國主義理論을 社會學上의 單一現象으로 取扱하기 위해서 歷史의 事實을 分析한 然後에 다음과 같은 세가지 命提를 提起했다.⁽⁵⁰⁾

첫째로 分明한 目標없이 無目的의인 武力에 의한 擴張에의 本能的 傾向이 人類歷史上 중요한 役割을 수행하였다. 大多數의 戰爭이 適切한 理由없이 強行되어왔다. 이 말은 歷史上의 社會構造는 合理的 必要性만으로는 說明될 수 없는 本能的 衝動的인 非合理的 行動이 存在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戰爭의 必要性은 단순히 衝動이나 本能만이 아니라 民衆이나 階級이 生存하기 위해서는 武士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客觀的인 生活上의 要請이 또하나의 要因이었다. 옛날부터 그러한 환경하에서 생긴 心理的 傾向과 社會構造는 일단 確立되기만 하면 그 意味가 없어지고 그것을 維持시키는 機能이 消滅된 뒤에도 그 惰性은 오래 持續한다. 이 말은 社會의 歷史的 發展過程은 下部構造로서의 經濟力, 經濟構造는 變化되어도 上部構造로서의 社會構造, 行動樣式, 意識形態 등 前時代의 유산은, 殘存하여 커다란 影響을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로 好戰的 傾向과 好戰的 構造의 存續을 助長하는 副次的 要因이 있다. 하나는 支配階級の 國內利益이며 둘은 戰爭政策에 의해서 經濟적으로나 社會적으로 個人的 利得을 얻는 사람들의 影響이다.

이러한 세가지의 命題로 부터 始作되는 「슈페터」의 帝國主義社會理論은 그의 經濟發展의 理論과 實際에 관한 이론바 「슈페터體系」와는 어떻게 連結되는 것인가에 대한 學界의 論爭은 자못 興味로운 바 있다.⁽⁵¹⁾

(50) *Two Essays by Joseph A. Schumpeter*, pp. 64—65.

(51) Schumpeterian System 에 있어서의 「슈페터」帝國主義論의 位置規定에 관한 論議는 各樣各色이다.

R.V. Clemence 와 F.S. Doody는 *The Schumpeterian System* 이라는 大한 共著를 내면서도 그 안에 「슈페터」의 帝國主義論에 관해서는 하나도 言及되어 있지 않다. P.M. Sweezy는 Joseph A. Schumpeter: *Imperialism and Social Classes*의 Editor's Introduction 에서 「슈페터」의 帝國主義論은 「슈페터體系」構成의 一部分으로 包攝되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O.H. Taylor는 “Schumpeter and Marx: Imperialism and Social Classes in the Schumpeterian Syste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Nov. 1951. pp. 525—555 에서 P.M. Sweezy가 「슈페터」의 帝國主義論을 「슈페터」體系의 經濟學分野의 骨格部分으로 보는데 대하여 일단 反對하면서도 「슈페터」의 社會學著作들이 결코 經濟學著作과 全려 關聯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즉 O.H. Taylor는 「슈페터體系」를 二部面構造로서 理解하고 「슈페터」의 帝國主義論은 社會學分野의 作品이라고 規定한다. A. Smithes는 “Memorial Joseph Alois Schumpeter,”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950 에서 「슈페터體系」와 그의 帝國主義論間에는 思想的으로 關聯이 貫通하고 있다고 말한다.

「슈페터」는 그가 前提한 上記 세가지 命題에 따라 帝國主義의 性格을 다음과 같이 規定한다.

첫째 : 帝國主義는 超歷史의 概念이다. ——「레닌」은 帝國主義를 資本主義의 最後段階라는 時期的인 歷史的 概念으로서 把握하고 있는데 反하여 「슈페터」는 超歷史的 概念으로 파악한다. 그는 “우리들의 研究方法은 단순한 것이다. 즉 나는 典型的이라고 생각되는 歷史的 範例에 따라 帝國主義의 生成發展을 分析하려는 것이다. 모든 歷史的 範例를 考察해 보면 어떤 時代의 것이든 帝國主義에 관한 單一的인 社會學的 問題를 抽出할 수 있는 共通의 基本的 特性이 發見된다”⁽⁵²⁾고 말하면서, 歷史上의 諸帝國主義, 예컨대 戰爭機械化로서의 古代 「에집트」帝國主義, 「페르샤」의 人民帝國主義, 「앗시리아」의 宗教的 帝國主義, 「오토」一世, 「프리드리히」二世의 支配者的 帝國主義, 「카사린」二世의 帝國主義, 「루이」14世의 帝國主義, 資本主義時代의 帝國主義 등등을 考察하고 모든 時代의 帝國主義를 社會學的 單一現象으로 說明할 수 있다는 超歷史的 概念으로 把握하였다.

둘째 : 帝國主義는 非合理的 概念이다. ——歷史上의 社會構造는 合理的 必要性만으로는 說明할 수 없는 本能的 衝動的인 非合理的 行動이 存在한다는 社會學的 첫째 命題에 따라 “帝國主義는 國家가 無制限으로 擴張을 強行하려는 無目的的(Objectless) 傾向”⁽⁵³⁾이라고 「슈페터」는 定義한다. 그는 「無目的的」이란 用語를 사용한 理由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戰爭 決意는 어떠한 口實이든 特定한 目的으로서는 說明할 수 없다. ……征服은 直接的이고 具體的 利益으로서는 說明되지 않는다. ……擴張은 어느 의미에서는 그 自體가 目的이며 實은 擴張 그 自體以外에는 適當한 目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을 나타낼 適當한 語彙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無目的的이라고 呼稱한다”⁽⁵⁴⁾고.

全歷史上에 나타난 典型的인 帝國主義의 範例에 대한 「슈페터」의 說明은 다음과 같다.

“「히크소스」(Hyksos)驅逐以來 樹立된 「에집트」新王國의 社會的 政治組織體는 結局은 戰爭機械化되어 好戰的 本능과 戰爭에 대한 關心은 高潮되어 戰爭은 當然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에집트」新王國의 帝國主義는 戰爭의 必要上 만든 기구가 이제는 그 自體의 必要上 戰爭을 만들게 되었다.⁽⁵⁵⁾ 그러므로 “一定한 制限없이 廣範한 征服을 敢行하려는 意志와 統治할 수도 없는 地域까지 奪取하려는 意志가 「에집트」의 帝國主義”⁽⁵⁶⁾

(52) *Two Essays by Joseph A. Schumpeter*, p. 7.

(53) *ibid.*, p. 6.

(54) *ibid.*, pp. 5-6.

(55) *ibid.*, pp. 24-5.

라고 「숨페터」는 말한다.

「페르샤」인은 「에집트」인과는 달리 처음부터 武士民族(Warrior Nation)⁽⁵⁷⁾으로 歷史上에 나타나 社會共同體가 바로 戰爭共同體였다. 武士民族은 蓄積癖과 같이 無目的的으로 戰爭을 수행하였다. 「페르샤」帝國主義는 具體的 利益을 目標로 한다거나 被征服民을 「페르샤」化 하지도 않았다. 단지 侵略을 當然한 것으로 생각하는 戰爭自體가 目的이었다.

「앗시리아」인도 「페르샤」인과 같이 武士民族이었다. 게다가 「앗수르」(Assur)神을 戰爭의 神으로 만드는 宗教的 動機가 添加되었다. “「앗시리아」國王과 그의 追從者들은 戰爭과 狩獵을 運動구경과 같이 생각했음이 明白하다. ……이러한 것은 그들의 特殊한 能力과 性向으로부터 생기는 衝動을 滿足시키는데 有用하였다. ……戰爭과 征服은 手段이 아니라 目的이었다.”⁽⁵⁸⁾

中世의 독일諸王, 즉 「오토」一世와 「프리드리히」二世의 帝國主義는 비록 地方豪族들의 非協助로 目的은 이루지 못했으나 政治的 優位를 維持하기 위해서 戰鬥組織을 만들어 伊太利攻略을 試圖한 支配者의 帝國主義였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大王의 侵略은 “希臘文化나 希臘의 商業的 利益이 아니라 그의 앞에 展開되는 大帝國의 魅惑的 獲得物을 추구하는 國家帝國主義도 人民帝國主義도 아닌 一種의 個人的 帝國主義였다.”⁽⁵⁹⁾

「로마」帝國主義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달라 內政的 事情에 입각한 階級構造로부터 發生한 帝國主義라고 말한다. 즉 「로마」는 國內的 階級構造——農民階級, 「프톨레타리아」階級, 「라티퐁디움」의 土地所有者階級(Latifundian Landowners)——로부터 發生하는 國內的 “政治的 社會的 問題가 對外政策問題로 轉換될 때 「로마」帝國主義가 派生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動因에서 出發한 「로마」帝國主義가 일단 攻擊主義로 나아가게 되면 停止하기는 어렵게 되고 처음의 願望과 抱負의 境界를 넘어서 自動的으로 本來의 目的에 反하는 事態를 惹

(56) *ibid.*, p. 25.

(57) 武士民族이란 明白히 그 社會構造가 軍事的 機能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따라서 國王이나 武士階級の 힘에 의해서 軍事的 機能을 再調整할 必要가 없는 民族이다. 즉 武士民族은 政治的 有力階級이 戰爭을 本務로 하는 職業軍人에 의해서 構成된 民族이다. ……戰爭과 暴力的 擴張에 대한 意志가 人民으로 부터——여기서 말하는 人民이란 民主主義的 意味로서 使用하는 것은 아니지만——直接的으로 提起된다. 그러므로 人民帝國主義(People's Imperialism)라는 用語——오늘날에는 매우 無意味한 것으로 생각되나——가 武士民族의 경우는 現實的으로 存在할 수 있는 것이다. *ibid.*, pp. 25-6.

(58) *ibid.*, p. 33.

(59) *ibid.*, p. 50.

起시킨다”⁽⁶⁰⁾고 한다.

近世帝國主義의 範例는 「루이」14世의 帝國主義와 「카사린」二世(Catherine II)의 帝國主義를 叙述하고 있다.⁽⁶¹⁾

「루이」14世治下의 佛蘭西의 絶對主義의 民族國家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戰爭機械를 의미하였다. 軍事力이 弱化되면 國王은 어떠한 手段으로서든지 隱蔽해야만 했다. 즉 國王은 衰退해서는 안될 戰爭機械를 支配하고 있는 셈이다. “「루이」14世의 好戰의 性格과 戰爭政策은 그 國家의 社會構造上의 要請과 傳統의인 支配階級の 影響으로부터 說明될 수 있는 것이지 征服의 結果 직접 獲得되는 利益이 問題로 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當時의 國際的 軍事問題에 대한 重商主義의 役割이 지금까지 過大評價된 것은 是正되어야만 옳을 듯하다”⁽⁶²⁾고 「슈페터」는 말한다.

「카사린」二世治下의 露西亞帝國主義의 性格을 「슈페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카사린」二世는 主觀的 見地에서는 戰爭政策을 傳統의 當然한 歸結로서 생각했음이 틀림없고 하나의 재미있는 노리개(toy)로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大英雄들의 先例를 섬겼다. 戰爭은 大英雄들의 常習의 生活樣式의 一部, 主權者의 榮華로운 一要素, 一種의 流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카사린」二世는 機會만 있으면 戰爭을 營爲하였고 戰爭은 戰爭의 結果 얻어지는 利益을 目標로 했다기보다 오히려 個人的 氣分(Personal Whim)에 依存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深遠한 計劃과 廣範한 洞察力과 確固한 目標 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戰爭을 수행했다는 見解는 잘못이 아닐 수 없다.”⁽⁶³⁾ 말하자면 「카사린」二世의 帝國主義는 具體的 利益이라는 合理的 解釋으로서 說明되는 것이 아니라 無目的의 戰爭機械로서의 惰性和 支配階級の 好戰의 衝動과 國王의 威信維持 등등의 非合理的 要素로부터 說明된다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古代, 中世, 近世에 있었던 帝國主義의 여러가지 範例에 대한 「슈페터」의 分析은 「하이만」이 말한 바와 같이 “柔軟하고 多岐한 包括的인 說明”⁽⁶⁴⁾이며 “偉大한 社會學的 聰明性和 歷史學的 博識의 理論”⁽⁶⁵⁾이 아닐 수 없다. 如何間 上述한 諸範例의 叙述 結果는 帝國主義는 合理的인 經濟的 利益으로 說明될 수 있는 概念이 아니라 非合理的인 概

(60) *ibid.*, p. 53.

(61) *ibid.*, pp. 54-64.

(62) *ibid.*, pp. 59-60.

(63) *ibid.*, pp. 63-64.

(64) E. Heimann, “Schumpeter and the Problem of Imperialism,” *Social Research*, 1952. p. 189.

(65) *ibid.*, p. 181.

念임을 明白히 하였다. 즉 帝國主義의 具體的 表現으로서의 軍國主義의 膨脹政策이나 領土擴張은 合理的 動機를 缺한 盲目的 行動에 不過하다고 看做하는 것이다.

세제 : 帝國主義는 隔世遺傳的이다. —心理的 傾向과 社會構造는 일단 確立되기만 하면 그 惰性은 오래 지속한다는 社會學的 둘째 命題는 資本主義下에서 帝國主義가 現象的으로 存在하는 論理的 根據를 提供한다.

「슈페터」는 帝國主義의 基本的 性格을 現存하는 生産力과 生産樣式의 地盤에 입각한 上部構造가 아니라 前資本主義의 經濟社會의 上部構造의 殘存形態로서 理解한다. 그는 “帝國主義는 隔世遺傳的이다. ……現在의 生活環境으로부터 생긴 要素가 아니라 과거의 生活 환경으로부터 생긴 要素다. 經濟史的 用語로 말하면 現在의 生産關係로부터 생긴 要素가 아니라 過去의 生産關係로부터 생긴 要素다. 그것은 社會構造의 隔世遺傳이며 感情的 反應에 관한 個人的 心理的 慣習의 隔世遺傳”⁽⁶⁶⁾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資本主義時代의 帝國主義는 前資本主義時代의 構造의 要素, 組織形態, 利害關係 및 人間的 態度와 感情의 繼承物로서 理解한다.

네제 : 資本主義는 反帝國主義的의이다. —「슈페터」는 “純粹한 資本主義世界는 帝國主義의 衝動을 위해서 沃土를 提供치 않는다. ……資本主義社會의 人民들은 本質的으로 好戰的 傾向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資本主義가 經濟에 浸透하고 있는 곳과 또 그 經濟를 통하여 近代國民의 마음속에 資本主義가 浸透하고 있는 곳에서는 反帝國主義的 傾向이 나타난다고 期待할 수 있다”⁽⁶⁷⁾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例를 들어 實證한다.⁽⁶⁸⁾

(a) 資本主義世界에서는 戰爭, 領土擴張, 內閣外交, 軍備, 職業軍人 등등에 대해서 原則的으로 反對한다. 原理로서의 平和主義는 資本主義以前에도 있었으나 近代의 平和主義는 그 個個의 思想的 由來야 어떠한 그 政治的 基盤에 關한 限 틀림없이 資本主義世界의 것이다.

(b) 資本主義가 浸透하고 있는 곳에서는 強力한 平和政黨이 出現하므로 모든 戰爭은 自動的으로 國內에서 政治鬭爭을 意味하게 된다. 民衆의 態度는 항상 平和政黨편이므로 帝國主義政策은 점점 困難하게 된다.

(66) *Two Essays by Joseph A. Schumpeter*, p. 65.

(67) *ibid.*, pp. 69—70.

(68) *ibid.*, pp. 70—73.

(c) 資本主義에 의해서 創出된 產業勞動者階級도 매우 反帝國主義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勞動者階級이 戰爭을 承認하고 戰爭을 방관할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달콤한 煽動에 달려들어간 結果일 뿐이다. 勞動者階級은 絶對로 自進하여 領土擴張政策을 強行하려 하지 않는다.

(d) 資本主義時代에는 合理的인 資本主義的 生産樣式의 心理狀態가 作用하여 戰爭의 防止法과 國家間의 紛爭을 平和의으로 解決하려는 方法이 發達하였다. 그 例로서는 「헤에그」의 仲裁裁判所와 기타 여러가지 紛爭解決을 위한 國際會議을 들 수 있다.

(e) 美國의 경우는 특히 反帝國主義的이다. 美國은 軍備制限(1817)과 調停裁判所(1797)에 관한 條約을 最初로 主張했고 締結한 나라다. 美國은 19世紀동안 戰爭機會가 있었으나 利用하지 않았고 「멕시코」나 「캐나다」의 獨立도 侵害하지 않았다.

이러하기 때문에 資本家世界는 好戰爭態度를 育成한다기보다 오히려 抑壓하며 資本主義는 그 性質上 反帝國主義的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資本主義下에서 現實的으로 存在하는 바의 帝國主義的 傾向은 資本主義로 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外部로부터 資本主義世界에 搬入된 非資本主義的 要素(alien elements)로 부터 생긴 것이라고 한다.⁽⁶⁹⁾ 이에 관한 具體的인 說明은 帝國主義와 資本主義項에서 詳述하기로 한다.

다섯째 : 帝國主義는 死滅한다. —“……現代世界의 雰圍氣는 前資本主義的 諸要素를 衰退시킬 것이 틀림없다. 現代資本家世界에서는 前資本主義的 諸要素를 支持하고있는 支柱가 耐久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確實하다. ………好戰의 本能이나 戰爭에로의 構造的 要素, 組織形態 등은 아무리 戰爭機構를 永遠히 發砲態勢로 維持시키고 戰爭의 危險感을 끊임없이 人民에게 갖도록 하려해도 어느때가는 政治的으로 克服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前資本主義的 諸要素가 死滅함과 더불어 帝國主義도 또한 死滅할 것이다.”⁽⁷⁰⁾라고 「슈페터」는 豫診한다. 이 말은 非合理的이고 無目的的인 擴張意志는 순수한 資本主義社會內에서는 永久히 寄生될 수 없으며 早晚間 帝國主義的 諸要素는 資本主義로부터 逐出當할 運命에 처한다는 것이다.

(2) 帝國主義와 資本主義

18世紀 後半期에 접어들자 社會史의 全面에 浮刻되기 始作한 資本主義社會의 人民들은 本質的으로 非好戰的 傾向을 띤다. 그리고 資本主義經濟의 本質的 特徵이요 그 所産인 自由貿易이 支配하는 곳에서는 어떠한 階級도 武力의 擴張 그 自體에 關心을 가질 理가 없

(69) *ibid.*, p. 73.

(70) *ibid.*, p. 98.

다고 「슈페터」는 말한다. 왜냐하면 自由貿易이 支配하는 資本主義社會에서는 어떠한 나라의 사람이건, 商品이건 마치 外國이 政治的으로 自國領인 것처럼 自由롭게 出入할 수 있고 또 순수한 形態의 自由貿易下에서는 어떠한 국가도 外國의 原料나 食糧을 마치 그것이 自國領土內에 있는 것처럼 쉽사리 入手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⁷¹⁾

그러나 때로는 資本家나 勞働者가 戰爭景氣에 便乘하여 對外的인 膨脹政策으로 말미암아 利得을 얻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戰爭으로 말미암아 發生하는 莫大한 消費過剩과 貧困化와 人命의 殺傷 등의 實質的인 損失이 隨伴되어 資本家階級の 全體로서의 利益은 戰爭의 動機가 될 수는 없다고 한다.

他方 資本主義的 社會構造內에서 軍需産業의 企業家들과, 小數의 有力한 大地主의 경우는 確實히 이들의 戰時利潤이 帝國主義支持要素의 重要한 一面을 이룬다.⁽⁷²⁾ 그러나 그것은 合理主義的 企業家自身이 主導的 役割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資本家階級の 意思와는 別個의 獨自的인 行動을 할 수 있는 國家가 國家自體의 意思로서 軍國主義를 수행하는 結果로 말미암아 軍需産業에 從事하는 企業家가 부수적으로 經濟的 利得을 얻는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經濟的 利益은 곧 全體 資本家階級の 利益을 意味하는 것도 아니고 永久的인 것도 아니므로 오히려 그것은 國家間의 關係 즉 政治過程의 變化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슈페터」의 帝國主義理論은 資本家階級の 代行機關으로서의 國家가 행하는 帝國主義政策은 窮極的으로는 資本家階級の 經濟的 利益과 密接히 結付된다는 「마르크스」主義의 帝國主義理論과는 對照的이다. 「슈페터」의 帝國主義論體系는 軍國主義의 役割에 대하여는 「마르크스」主義理論과는 前後가 뒤바뀌어 展開되어 있는 셈이다. 즉 資本主義가 軍國主義를 自己實現의 手段으로 利用하는 것이 아니라 軍國主義가 資本主義를 手段化하는 것으로 된다.

이러한 論據에 따라 帝國主義는 資本主義經濟의 必然的인 歸結이며 資本主義의 本質的 屬性이라고 規定하는 「마르크스」主義理論의 諸問題點을 「슈페터」는 하나 하나 論駁한다.

첫째 : 保護關稅는 資本主義의 生存을 위한 條件은 될 수 없으며 大部分의 階層에게 損害를 끼친다.⁽⁷³⁾

確實히 關稅障壁은 原料나 食料의 輸入과 工業製造品の 輸出을 妨害하게 되므로 關稅勢力圈의 擴張과 때로는 武力手段에의 關心이 나타날 것이다. 他方 關稅障壁은 國家와 國家

(71) *ibid.*, p. 75.

(72) *ibid.*, p. 75.

(73) *ibid.*, pp. 76—79.

間의 經濟的 關係를 惡化시키고 各國의 企業家들로 하여금 敵對的 態度를 취하게 하므로 帝國主義의 可能性을 容易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事實은 保護關稅下에서는 資本主義社會內의 勞動者나 資本家階層은——企業家와는 달리——保護關稅에 의해서 實際로 消費者로서의 經濟的 損害를 볼 뿐만 아니라 生産者로서도 損害를 볼 뿐이다. 이에 反하여 企業家の 경우는 關稅가 自己의 生産物에 附加되는 限에서는 利益을 본다. 그러나 이러한 企業家の 利益도 相對國의 對抗手段에 의해서 또는 他商品의 價格이 關稅때문에 騰貴함으로써 實質的으로는 減殺된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企業家들은 그렇게도 強力하게 保護關稅를 熱望하는 것인가? 그 對答은 간단하다. 一般的으로 運賃이 下落할 때마다 外國에서 生産이 進歩할 때마다 經濟上의 均衡이 파괴되므로 國內의 企業은 그것에 順應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轉業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그러한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如何한 나라의 產業組織 가운데서도 舊式의 事業經營法은 남아있는 법인데 그러한 企業은 外國과의 競爭에서 敗亡될 것이므로 一部企業家들은 政治的 策動에 의한 特別保護로서 그것을 保護하고 남달리 純利를 取得하기 위하여 保護關稅를 強力히 希望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理由는 非資本主義的 要素로 부터 생겨난 保護主義의 精神이 미리부터 存續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 카르텔, 트러스트에 의한 獨占化過程은 未然에 防止된다.⁽⁷⁴⁾

資本主義下에서는 카르텔, 트러스트의 形成이 現實적으로 存在하고 發展하고 있는 것도 事實이다. 또 保護關稅나 獨占下에서는 經濟外的 모든 手段을 講究하여 資源의 確保와 새로운 市場을 征服하려는 侵略的 經濟政策, 侵略的 對外政策, 戰爭 등에 대한 관심이 惹起될 可能性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事態는 實際로는 政治적으로나 經濟적으로 언제까지나 持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保護關稅나 카르텔, 트러스트 등에 의해서 刺戟된 侵略戰爭으로 經濟的 利得을 取得하는 政治的 社會的, 階級分子가 약간 있기는 하지만 그들 政策의 本質은 資本主義下에 있는 大多數의 國民들에게 人氣를 喪失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憎惡의 눈초리로 監視를 당하고 있다. 카르텔에서 除外된 資本家들까지도 最初에는 資本의 「덤핑」에 의해서 利子率이 上昇하므로 一時的으로는 損益을 분간할 수 없었지만 利子率의 引上으로 因한 生産費의 騰貴라든가 國內資本에 대한 企業家들의 競爭不振이란 現象을 通하여 結局은 不利한 事態에 이른다. 또 全人民에 比하면 一部에 지나지 않는 카르텔貴族들의 特權的 地位에 대한 공격은 政治적으로 所得이 있을 뿐만 아니라 小

(74) *ibid.*, pp. 79-87.

數 카르텔貴族에 대한 공격은 全般的인 既存秩序에 대한 어떠한 威脅도 의미하지 않으므로 特權階級の 強制的 擴張行爲는 未然에 防止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제 : 獨占資本主義는 資本主義發展의 內在的 法則으로부터 成長하는 것은 아니다.⁽⁷⁵⁾

資本主義는 그 性格上 확실히 大規模生産으로 誘導되지만 生産이 大規模化했다 해서 例外없이 모든 産業이 單一企業 또는 二・三個 少數企業으로 集中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떠한 企業이든 一定地域內에서는 그 成長에 一定한 限界가 있고 企業結合의 경우도 一定한 規模에 달하면 組織能力上的 限界에 직면한다. 自由競爭下에서는 이러한 限界 以上으로 企業結合을 추진시킬 수 있는 內在的 傾向은 없다. 특히 特權이나 카르텔의 發生은——大規模生産과는 全然 別個의 現象이다.⁽⁷⁶⁾——自由競爭制의 自己運動에 의해서는 決코 說明되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特權이나 카르텔이 保護關稅를 背景으로 하지 않고는 그들의 基本的인 目的——獨占政策을 追求하는 것——을 達成할 수 없으며 保護關稅가 없는 곳에서는 그 本質的 意義를 喪失한다는 事實로부터 생각하면 分明하다. 保護關稅는 自由競爭制로 부터 自動的으로 成長되지 않는다. 그것은 政治的 行爲의 所産이다. 그러므로 帝國主義를 資本主義의 必然的 段階로서 叙述하거나 資本主義가 發展하여 帝國主義로 移行한다고 云云하는 것은 根本的으로 잘못이라는 것이다. 資本主義世界의 生活樣式은 決코 帝國主義的 傾向을 助長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섯째 : 資本主義時代에 있어서의 現代帝國主義의 諸要素는 資本主義의 內在的 論理로부터 發生한 것이 아니라 前資本主義時代에 있었던 여러 가지 要素의 繼承物이다.⁽⁷⁷⁾

關稅는 元來 君主國의 財政的 利得을 目的으로 發生하였다. 말하자면 關稅는 君主가 商人을 榨取하는 方法의 하나였다. 이러한 榨取方法은 13世紀以後 君主制下에서는 漸次로 洗鍊되어 直接的 貨幣收益으로서의 關稅收入은 別로 強調되지 않고 生産的 課稅對象을 만드는데 間接的 作用의 面이 점점 強調되기에 이르렀다. 즉 關稅의 保護作用이 重要視 되기 시작하였다. 保護作用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君主의 貨幣的 利益을 中心으로 하는 保護作用이었음을 注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保護作用은 通商과 産業이 不自然스러운 通路를 形成하는 새로운 經濟事情을 發生시켜 關稅와 餘他的 特權은 經濟發展의 溫床으로

(75) *ibid.*, pp. 87-89.

(76) 「슈페터」는 獨占과 大規模生産을 別個의 現象으로 看做한다. 競爭的 資本主義는 大規模生産은 있지만 自動的으로 獨占化傾向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고 한다. 카르텔, 特權의 發生을 獨占으로 본다. *ibid.*, p. 88.

(77) *ibid.*, pp. 89-96.

되었다. 君主의 利益을 위해서 設立된 이러한 經濟的 諸制度는 그 周圍에서 寄生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結局은 그 制度의 存續을 要求하게 되었다. 商業的 「부르조아지」나 工業的 「부르조아지」는 殘存하고 있는 封建勢力과 對抗하기 위해서 君主의 保護를 必要로 했기 때문에 君主에게 依存하기를 갈망하였다. 「부르조아지」는 地域的 意味로서나 國民的 意味로서나 君主의 權力手段의 하나로 될 것을 스스로 願한 셈이다. 初期資本主義時代의 通商이나 產業이 이와 같이 해서 前資本主義時代의 方法과 君主制의 性格을 強하게 附帶하고 君主制의 利益에 奉仕하였고 또 奉仕당하였다. 즉 「부르조아지」는 本質的으로 非資本主義的인 環境의 要請과 利益에 의해서 形成되었다. 말하자면 君主國家에 의해서 形造되었다. 貴族도 「부르조아지」와 마찬가지로 君主國家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近代世界에 登場하였다. 貴族에게 規律을 가르치고 忠誠心을 불어넣어 이를 國家化하고 帝國主義化한 것은 君主였다. 君主는 「부르조아지」나 貴族의 民族主義 感情을 侵略的 「내쇼널리즘」으로 轉換시켜 그 위에 「부르조아지」나 貴族을 自己의 組織의 支柱 特히 自己의 戰爭機關으로 삼았다. 歷史的으로 보면 「부르조아지」는 君主權力에 對抗하고 君主權力의 一部를 奪取하기도 했으나 結局은 君主에게 服從하였고 國家利益에 奉仕하였다. 「부르조아지」는 舊君主國家時代의 精神에 感染되고 그것에 의해서 訓練되었으므로 君主가 排除되고 貴族의 公權力이 喪失된 곳에서도 君主國家의 思想을 繼承하고 있었다. 君主가 軍隊를 必要로 했기 때문에 近代의 「부르조아지」는 人口增加를 렬렬히 부르짖었고 君主가 凱旋將軍으로서의 評判을 保持하기 위해서 征服을 必要로 했기 때문에 「부르조아지」도 國威宣揚을 渴望하였고 君主가 多額의 金의 貯藏을 貴重히 여겼기 때문에 「부르조아지」는 오늘날에 있어서까지도 重金主義의 偏見을 고집하였고 好戰的인 君主가 同様の 好戰的인 隣人으로 부터 攻擊받을 것이라고 不斷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近代 「부르조아지」는 오늘날에 있어서까지도 侵略의 意圖를 이웃의 國民들에게 探知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形態의 모든 思想은 本質的으로 非資本主義的인 것이며 實은 完全히 資本主義가 支配하는 곳에서는 急速히 消滅될 수 있는 것이다. 帝國主義의 要素는 君主國家制的인 利害關係의 遺物에 불과하며 君主國家의 要素가 依然히 存續하고 있는 限 그러한 要素는 發生한다.

近代帝國主義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 近代의 「내쇼널리즘」과 軍國主義에 대해서도 「슈페터」는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

「내쇼널리즘」은 國民的 性格의 肯定的 自覺과 攻擊的 優越感에 立脚하고 있다. 「내쇼널리즘」은 君主國家의 안에서 부터 생긴 것이다. 元來 國內問題에 대한 政治的 防禦手段으

로서의 保守主義者들의 「내쇼널리즘」을 「부르조아지」는 肯定的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資本主義의 本質로 부터 論理的으로 발생하는 生活樣式은 必然的으로 反「내쇼널리즘」의 方向의 政治와 文化를 수반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르조아지」가 「내쇼널리즘」方向으로 推進하게 된 理由는 그들이 君主國家의 權力에 服從하고 提携함으로서 그들의 經濟的乃至 心理的 態度를 形成했기 때문이다. 「부르조아지」와 軍國主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純粹한 資本主義의 生活樣式에서 보면 「부르조아지」는 非好戰的이며 武力手段과 職業軍人을 拒否하고 排斥한다. 그런데 「부르조아지」가 軍國主義와 結託하게 되는 理由는 君主國家 안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내쇼널리즘」과 軍國主義는 資本主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님에도 不拘하고 資本主義化되어 結局은 資本主義로 부터 그들의 最善의 「에너지」를 끌어낸다.

以上과 같은 論據로 부터 近代帝國主義는 歷史的으로나 社會的으로나 君主國家의 遺産이라고 「슈페터」는 말한다. 즉 近代帝國主義는 君主國家의 構造的 要素, 組織形態, 利害關係 및 人間의 態度 등의 繼承物이며 前資本主義的 諸力의 結果이지 決코 資本主義自體의 內在的 論理로 부터 發生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3. 批 判

「슈페터」가 帝國主義를 超歷史的 概念으로 把握한 것은 帝國主義의 普遍的인 一般理論의 分析모델을 樹立하려는 意味로서는 分明히 훌륭한 見解가 아닐 수 없다. 科學徒라면 歷史란 事事件件이 個別的 特殊性을 가지고 있으므로 到底히 個個의 事實間의 一般理論을 定立할 수 있는 科學的 方法을 適用할 수 없다는 立場에 加담할 수는 없다. 權力政治의 立場에서 보면 國家가 成立된 以來 國家權力의 膨脹傾向은 時의 古今, 洋의 東西를 莫論하고 存在하였었다. 그러므로 帝國主義를 國家權力의 膨脹過程으로 본다면 分明히 超歷史的 概念으로 取扱되어져야만 한다. 그래서 「슈페터」는 古代國家로 부터 現代資本主義世界에 이르는 歷史的 諸範例에 대한 多岐한 包括的인 分析 끝에 모든 時代의 帝國主義는 共通의 基本的 特性을 갖는 社會學的 單一現象이라고 말하여 帝國主義를 超歷史的 概念으로 把握한 점은 매우 훌륭한 바 있다.

다음으로 「슈페터」가 帝國主義의 本質을 國家가 無制限으로 擴張을 強行하려는 傾向이라고 說明한 점도 一應肯定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⁷⁸⁾ 그의 이러한 見解는 「모

(78) 拙稿, 上揭書 參照.

진소)나 「J. 스트레이치」의 帝國主義에 대한 定義와도 一脈相通한다고 看做되어진다.

그러나 帝國主義의 具體的 表現으로서의 膨脹政策이나 領土擴張은 「슈페터」가 말하듯 合理的 動機를 缺한 無目的의 盲目的 行動에 不過한 것일까? 矢內原忠雄氏는 다음과 같이 批判한다. “政治的 支配의 擴張과 征服은 생각컨대 外延의 意味를 갖는 것이며 여기에 어떠한 內容이 添加됨으로서 비로소 그 完全한 意味를 實現한다. 政治的으로 支配하려는 慾求는 實在한다. 그러나 支配를 爲한 支配, 戰爭을 위한 戰爭, 征服을 위한 征服은 그 自體로서는 無意味하지 않은가? 帝國主義의 本質을 實利와는 關係없는 하나의 遊戲로 看做하는 것을 나는 正當한 見解로서 받아 들일 수 없다”(79)고. 事實 帝國主義의 本質을 「슈페터」의 이른바 無目的의 傾向으로 規定할 수는 없다. 戰爭 및 征服을 帝國主義의 本質로서 重視한 것은 正當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帝國主義 實現의 手段이며 帝國主義 目的의 自體는 아니다. 歷史的 事實은 帝國主義는 具體的 利益을 目的으로 하고 있음이 分明하다. 「슈페터」는 具體的인 利益은 好戰的 傾向이나 構造의 存續을 助長하는 補助的 要因에 불과하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前後가 顛倒된 論法이다. 오히려 具體的 利益을 위해서 征服이나 戰爭을 敢行한다고 보아진다. 換言하면 征服이나 戰爭은 어떠한 具體的인 動因으로부터 發生하는 것이다. 그 具體的 動因으로서 帝國主義經濟理論家들은 經濟的 利益이라는 動因만을 提示하는데 反하여 「울프」같은 사람은 未開種族 教化라는 道德的 責任으로서의 道德的 動因, 個人的 冒險心과 國家의 榮譽心으로서의 感情的 動因, 本國領土의 安全保障으로서의 軍事的 動因, 그리고 經濟的 動因 등을 들고 있으며(80) 「W.W.로스토우」같은 이는 “擴張과 貨幣獲得의 게임은 돈벌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權力, 冒險, 挑戰, 威信 등의 人間的 動機에 의해서 展開되었다”(81)고 說破한다. 確實히 具體的 動因은 複數的이다. 그 複數的인 具體的 動因은 政治的, 經濟的, 軍事的, 社會的, 文化的 利益을 網羅하는 것으로 說明하는 것이 한결 은당할 것 같다. 그래서 筆者는 「帝國主義란 政治, 經濟, 軍事, 社會, 文化的 利益을 目的으로 一國家가 他國家를 制壓하고 支配하는 過程」이라고 豫備的으로나마 定義해 둘 수 있을 것 같다.

(79) 矢內原忠雄著 『植民及植民政策』 矢內原忠雄全集 第1卷 1963. (岩波書店) p. 81.

(80) L. Woolf, *Economic Imperialism*, 1921, Chapter I.

「L. 울프」는 帝國主義의 具體的 動因으로서 道德的 動因, 感情的 動因, 軍事的 動因, 經濟的 動因의 넷을 提示하고 있으나 前三者의 경우는 結局 經濟的 利益追求의 目的으로 獲得한 植民地領有를 存續하려는 辯護로서 利用한 것이라고 指摘하고 있다. 筆者는 이와 見解를 달리함을 明白히 해 둔다.

(81) W.W. Rostow, *A Non-Communist Manifesto*, 1959. 李相球譯 『反共產黨宣言』 p. 55.

帝國主義는 隔世遺傳의이며 資本主義時代의 帝國主義는 前資本主義時代의 惰性에 불과하다는데 대하여서도 矢內原忠雄氏는 다음과 같이 批判한다. „「슈페터」의 見解는 무엇보다도 먼저 歷史의 事實과 違背된다. 만약 帝國主義가 封建의 君主制時代로 부터 繼承된 舊勢力에 지나지 않고 資本主義發展과 더불어 衰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帝國主義는 19世紀以後에 있어서 보다 오히려 그 以前에 隆盛했음을 要求하는 것이다. 그러나 事實은 19世紀 前半까지는 도리어 自由主義時代——英國의 경우는 小英國主義時代——였으며 帝國主義는 그 이후에 勃興한 것이었다. 또한 그가 모든 帝國主義經濟社會 중에서 가장 前資本主義時代의 要素를 繼承하지 아니한 것은 美國이며 동시에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反帝國主義의인 것은 美國이라고 말하여 自說의 證明을 위하여 援用한 그 美國이 近年에 이르러 軍事化 帝國主義化한 것을 看過할 수 있겠는가? 帝國主義는 항상 軍國主義와 形影相伴한다. 그렇지만 그 軍國主義는 前時代의 社會的 構成의 殘存物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美國은 軍國은 아니었다”(82) 帝國主義와 資本主義의 兩立不能이란 命題를 立證하기 위해서 「슈페터」는 隔世遺傳說을 展開했으나 矢內原氏가 批判했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나 無理한 論法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슈페터」가 帝國主義를 過度하게 具體的 利益을 度外視한 無目的의 傾向으로 본테서 基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矢內原氏가 指摘한 바와같이 帝國主義는 隔世遺傳이요 帝國主義的 諸要素는 資本主義發展과 더불어 消滅한다는 論理라면 過去로 遡及하면 遡及할수록 帝國主義現象은 熾烈했다고 解釋되어 진다. ——「슈페터」는 過去면 過去일수록 帝國主義的 諸要素가 더 顯著하였다는 것이지 그 發現形態는 別個의 문제로서 理解해야만 한다고 辯明할런지도 모르지만——그러나 歷史的 事實은 반드시 그러한 現象形態로 展開되지 않았음을 말할것도 없다.

資本主義經濟社會의 本質觀에 대해서도 疑問의 여지가 있다. 矢內原忠雄氏는 다음과 같이 批判한다. “「슈페터」는 資本主義的 經濟社會의 本質을 自由競爭社會라고 말한다. 이것을 是認한다 하더라도……競爭은 즉 戰爭이다. 一面에서의 競爭은 他方面의 競爭力의 聯合的 援助를 要求한다. 經濟的 競爭이 단지 經濟的 競爭으로 그치지 않고 政治的 軍事的 競爭力에 의해서 그 決判을 내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이상할 것은 없다. 競爭的 經濟社會의 「이데올로기」가 本質적으로 非軍國的이라고 하는 것은 極히 矛盾이다.……現代에 있어서 企業의 獨占의 傾向이나 關稅戰爭의 激化 등은 前資本主義時代의 社會關係의 隔世遺傳이 아니라 資本主義的 經濟社會의 內部的 發展의 結果이다. 競爭은 獨占을 誘導한다. 獨占은

(82) 矢內原忠雄, 上掲書, pp. 79—80.

資本主義經濟 自體의 內部에서 發生하는 傾向이다.……世界的 經濟가 完全한 統制를 받지 않는 限 經濟單位 相互間의 競爭은 存在하기 마련이다.……”(83) 矢內原氏의 批判은 部分的으로는 肯定的이며 部分的으로는 否定的이다. 獨占形成은 확실히 「슈페터」가 지적한 바와같이 政治權力の 介入이 어느 程度 重要한 구실을 하였다. 政治史的 觀點에서 보면 近代國家의 經濟政策에 君主權力이 作用하지 아니한 곳은 한군데도 없었다. 그러나 矢內原氏의 「競爭은 政治的 軍事的 競爭으로 化한다」는 見解는 肯定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國家單位의 競爭은 확실히 보다 많은 具體的 利益——經濟的 利益 뿐만 아니라——을 爭取하려는 것이었다. 具體的 利益의 爭取過程에서는 必然코 防禦와 擴張이라는 循環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競爭的 資本主義社會의 理念的 要請은 非帝國主義的 일런지도 모르나 歷史的 事實은 非帝國主義的으로 될 수는 없었다. 「슈페터」自身이 다른 책에서 言及한 理論에 비추어 보아도 資本主義經濟社會는 本質的으로 反帝國主義的이라는 見解는 納得되지 않는다. 「A. 스미디즈」는 「슈페터」의 資本主義理論體系의 本質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 있다. “資本主義制度는 그 속에 變化와 發展을 助成하는 諸力을 內包하고 있다. 循環的 흐름 속에는 利潤의 可能性이 없는 以上 利潤을 追求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生産物을 導入하든지 새로운 生産方法을 研究하든지 新市場을 開拓하든지 새로운 供給源을 發見하든지 또는 產業內의 새로운 戰略的 地位를 獲得하든지 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新結合이나 革新」을 斷行하지 않으면 안된다. 均衡에의 全體의 傾向은 變化에 대한 抵抗을 의미한다.”(84) 이러한 論據는 「슈페터」의 『經濟發展理論』에 展開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제시된 「슈페터」의 企業家的 革新의 內容을 이루고 있는 「新市場의 開拓」「새로운 原料 半製品 供給源의 獲得」「새로운 戰略的 地位의 獲得」 등은 확실히 境遇에 따라서는 帝國主義的 政策이 追求하는 바의 動因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帝國主義와 資本主義의 兩立不能論을 주장한 것은 帝國主義를 과도하게 戰爭 遂行이란 面에서만 본테서 생긴 誤謬인 듯하다. 戰爭은 帝國主義의 典型的인 하나의 發現 形態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自體가 帝國主義 全部는 아니다. 「新市場의 開拓」「原料와 供給源의 獲得」「새로운 戰略的 地位의 獲得」 등은 分明히 選擇의인 帝國主義的 傾向임에는 틀림없다. 이렇게 본다면 「슈페터」自身도 어느 意味에서는 自由競爭的 資本主義經濟

(83) 同上, pp. 80—1.

(84) Arther Smithes, “Memorial Joseph Alois Schumpeter,”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950. pp. 638—9.

社會의 内部的 發展結果로서 帝國主義의 諸要素가 創出됨을 是認한 結果일 수 밖에 없다.

最後로 接近方法에 있어서 資本主義라는 現象의 分析에 利用되었던 全體로서의 社會科學的 接近方法이 否認되고 오직 社會心理學的 接近方法만을 적용하고 있음은 그 分析의 論理的 展開過程의 一貫性에도 불구하고 歷史的 事實과는 相反되는 結論이 도출되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帝國主義研究는 社會心理學的 方法만으로는 理解될 수 없고 全般的인 社會科學的 接近方法의 相互關聯下에서만 理解될 수 있는 것이다.

[筆者 서울大學校商科大學助教授]